201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문제 및 풀이
- 인문계열 -

덕성여자대학교 입학관리과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인문) - 전공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 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만에 가는 거요?"

"십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뭣땜에요?"

"낸들 아나. 무슨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 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루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있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황석영,「삼포 가는 길」)

(나) 이 소설은 1970년대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문제작이다. 흔히 말하듯 이 소설은 일단 1970년대 산업화가 초래한 폐해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작품의 말미 정씨와 영달이의 처지를 그리는 (가) 대목이 이런 판단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작품을 그렇게만 본다면, 작가는 소외 계층의 삶이 끝내 어둡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패배주의자나 비관주의자 혹은 운명론자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런가?

작품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쉽게, 작가가 작품의 뒤로 가면서 세 명의 주인공들에게 점

점 따뜻한 시선을 던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을 섞고 티격태격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의 냉랭함은 사라지고, 마지막엔 술집 여자인 백화로 하여금 이점례라는 본명까지 실토하게 만든다. 특히 영달이 백화를 업어준다거나 기차표와 찐 달걀, 삼립빵을 사준다거나 하는 에피소드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실재하지도 않는 지명을 제목으로 만들며 굳이 '수풀 삼(森)'자를 넣은 것도 모자라 삼립(三立)빵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맺음 문장을 통해, 혹시 작가는 눈발과 어둠 앞에 내몰렸지만 어쨌든 삶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러니 변해버린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미래 고향으로서의 삼포가 이들에게 있어 더 문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눈 내리는 어두운 들판을 달릴망정 기차는 강철의 몸통을 하고 있다.

(다) 개인의 선의 원리인 자아실현과 사회의 공동선의 원리인 정의의 관계는 배타적이지 않다. 개인의 자아실현이 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아실현은 개인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통해 이룰 수 있다. 한편 사회의 공동선도 개인으로서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제도와 정책 또는 조직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자아실현과 공동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문항1) (가)에 대한 (나)의 읽기가 전제하고 있는, 작품 해석의 바른 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0자 내외)

문항2) (다)를 이용하여 (나)에서 말하는 미래 고향으로서의 삼포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시오.(300자 내외)

※ 출제 근거

교과: 독서와 문법1
영역: 글의 특성
내용 요소: 필자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이해한다.

교과: 문학1
영역: 문학의 역할
내용 요소: 문학이 다양한 가치 추구를 통해 공동체의 역동성을 증진함을 이해한다.

※ 해설

1. 출제 의도

문학 텍스트 읽기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여 적절한 읽기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2. 지문 해설

(가) 황석영, 「삼포가는 길」(『신동아』, 1973.9.)의 부분
(나) 고등학교 『문학』상(교학사, 2012, 239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 위원이 자작함.
(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학사, 2012, 20쪽.

3. 문항 해설

문항1)

· **의도:** 문학 작품이 특히 더 그러하지만 텍스트들은 읽는 이의 독해 방법이나 배경지식의 다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중에는, 특히 교과서의 경우에도 한 텍스트에 대해 단일한 읽기 방식만을 소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독해 가능성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실제 텍스트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고자 했다.

· **예시 답안:** (나) 앞부분에는 소설 「삼포 가는 길」이 1970년대 산업화가 초래한 폐해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작품을 미래 고향의 의미나 그것의 설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소설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읽기의 방법이나 배경 지식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읽기가 가능하다는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채점 기준**

1. 작품 읽기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태도에 대한 언급
2. 기존의 해석에 대한 재해석(새롭게 읽기)에 대한 언급

3. 정확한 표현과 문장

· 1+ 2+ 3=A
· 1+ 3=B
· 2+ 3=C
· 3=D
· 기타=E

문항2)

· **의도:** (나)의 후반부에서 필자는 「삼포 가는 길」이 비관주의나 패배주의를 그리려는 목표가 아니라 노동자나 소외 계층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상호 연대를 통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찾아내고 있다.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라는 (다) 지문의 문제의식도 결국 미래 고향으로서의 삼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예시 답안:** 「삼포 가는 길」에 대한 (나)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정씨의 삼포는 사라졌다하더라도 정씨, 영달이, 백화 등이 어울려 만들어가야 할 미래 고향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노동자나 소외 계층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상호 연대를 통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미래 고향은 (다)가 제기하고 있는 자아실현과 공동선이라는 목표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사회여야만 한다. 즉 '미래 고향으로서의 삼포'란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개개인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 작용을 하는 바람직한 세상에 대한 기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 **채점 기준**

1. 노동자나 소외 계층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상호 연대를 통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제의식에 대한 언급
2. 미래 삼포가 '자아실현과 공동선이라는 목표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사회'라는 언급
3. 정확한 표현과 문장

1+ 2+ 3=A
1+ 3=B
2+ 3=C
3=D
기타=E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인문) - 전공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윤리 법칙은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명령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도록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도덕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주의의 밑바탕에는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나) 윤리 법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목적에서 비롯한다.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행복이고 좁게는 쾌락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느냐는 것이다.

(다) 다섯 명의 사람이 묶여 있는 선로 위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달려간다. 이대로 두면 전차가 다섯 모두를 죽일 것이다. 중간에 갈라지는 선로가 있지만, 여기에는 한 명이 묶여 있다. 내가 선로 변경 스위치를 당기면 다섯을 살릴 수 있으나 한 명이 죽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스위치를 당겨야 할까?

이제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자. 이번에 나는 전차와 다섯 명 사이에 놓여있는 육교 위에 있다. 나는 가벼워서 전차를 세울 수 없지만, 옆에 정말 무거운 사람이 있다. 내가 그를 밀어 떨어뜨리면,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을까?

(라) 이성적 판단은 (다)의 두 상황에 일관적인 지침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실제 판단은 비일관적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스위치를 당기는 것을 선택했으나, 옆 사람을 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심리학자는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과 함께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함께 반응함을 발견했다. 특히 스위치의 경우보다 직접 미는 판단을 내릴 때 감정 영역의 반응이 더 컸다. 만일 다수를 위해 한 명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희생자가 아기라면 우리는 더 큰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기일 때에,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줄 것이다.

문항1) (가)와 (나)의 각 윤리관이 (다)의 전차 딜레마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문항2) (라)가 시사하듯 윤리적 판단에 '공감'과 같은 감성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시오. (300자 내외)

※ 출제 근거

· 교과: 윤리와 사상
· 영역: 서양 윤리 사상
· 내용 요소: 공리주의와 관념론

· 교과: 생활과 윤리
· 영역: 생활과 윤리의 의의
· 내용 요소: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 해설

1. 출제 의도

윤리 이론을 윤리적 딜레마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더 나아가 윤리 판단에서 논리적 추론과 감정의 역할에 대한 반성 능력을 평가한다.

2. 지문 해설

(가) · 출처: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pp. 110-119
· 주제: 의무론적 윤리관

(나) · 출처: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pp. 110-119.
· 주제: 목적론적 윤리관 (공리주의)

(다) · 출처: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pp. 36-7을 바탕으로 출제자 작성
· 주제: 전차 딜레마

(라) · 출처: Green, J. (2005) 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자 작성
· 주제: 전체 딜레마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근거와 윤리적 판단의 해석
· 내용: 전차 딜레마의 두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신경생리학적 근거가 뒷받침하듯이 합리적 판단보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의 차이로 설명된다.

3. 문항 해설

문항1) 수험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쉽게 의도한 문항이다. (라)에 언급되었듯이 각 윤리 이론을 (다)의 두 상황에 적용하여 일관적인 판단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제시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 채점 기준
· 두 이론을 두 경우에 모두 일관적으로 적용하여 추론하되,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힘: A
· 추론이 일관적이며 설명을 제시하나, 표현이 지나치게 제시문에 의존: B
· 추론의 결론만을 쓰거나 표현이 빈약: C
· 추론이 두 상황에서 비일관적, 또는 관련성 적은 곁가지로 빠짐: C 또는 D

■ 예시답안

(가)는 (다)의 두 가지 상황에서 다섯 명이 죽더라도 다른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본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기에 (가)에 위배된다. 반면에 개인보다 사회적 공리를 강조하는 (나)에 의하면, 두 경우 모두 한 명이 희생되더라도 다섯을 살리는 것이 행복의 총합을 증진시키므로 옳은 일이다.

문항2) 전차 딜레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어떠한 윤리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두 상황에 모두 일관적인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비일관성을 기존의 윤리 이론 내에서는 설명해 낼 방법이 없다. 철학자이자 신경심리학자인 조슈아 그린(Joshua Green)은 전차 딜레마에 대한 두뇌 연구를 통해 감정이 사람들의 윤리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밝혀내었다. 이는 행위의 동기로서 감정, 특히 공감을 강조하는 데이비드 흄의 윤리 이론과도 연결된다.

문항 2)는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다.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희생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과 반응을 보이며, 법정에서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진다.

답안의 방향은 몇 가능성에 열려 있다.

(1) 합리성에 의한 (가)와 (나) 이론의 기계적인 적용을 비판하며, 사회적 공감이나 측은지심이 윤리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뒷받침한다.

(2) 비이성적인 요소에 의한 윤리적 판단의 문제점(비일관성, 보편적이지 않음, 공사 구분의 문제 등)을 사례를 통해 논증할 수도 있다.

(3) 보편적 공감의 측면에서 감정의 개입을 옹호하지만, 사적인 감정 적용의 한계를 비판할 수도 있다.

■ 채점 기준

·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일관적으로 뒷받침하며, 자신의 목소리로 효과적으로 표현: A
·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적지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거나(예: 다루는 문제와 사례가 윤리적 판단, 즉 옳고 그름의 문제와 상관이 적음) 표현이 제시문에 크게 의존: B
· 주장과 근거 제시가 비일관적이며 사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C
·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효과적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함: D

■ 예시 답안

(라)가 말하듯, 윤리적 판단에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성만을 따라 윤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합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감도 중요하다. 공감의 중요성은 세월호 실종자 구조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공리만 계산했다면, 구조를 일찍 중단하는 것이 옳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통해 구조는 최근까지 지속되었고, 구조에 관한 사회적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pp. 110-119.

생활과 윤리, 교학사, pp. 22-49.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Green, J., “Cognitive Neuroscience and the Structure of Moral Mind”, in Carruthers, P., Laurence, S., and Stich, S. eds. (2005), *The Innate Mind*, The Oxford University Press.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인문) - 전공3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맹자가 양혜왕을 만났을 때 왕이 말했다.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로움이 있지 않겠소?" 맹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찌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大夫)들은 어찌하면 우리 가문을 이롭게 할까 하며, 선비와 시인들은 어찌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할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여야 합니다.

(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 그러나 사회 집단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으므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기심은 개별적으로는 점잖게 나타나지만, 집단의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 외국계 기업 A사가 국내에 진출하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했다. 홈페이지에 올린 세계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한글로 표기해 물의를 빚은 A사의 19일 서울역 홍보행사가 국민정서를 고려한 코레일 측의 통보로 취소됐다. 코레일의 이같은 취소 결정은 잇따라 터진 A사의 부적절한 행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공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보다 제품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영문으로 된 사업보고서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문제의 지도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소비자 반감이 커지고 있다.

문항1) (가)에서 맹자가 말한 '인의(仁義)'는 '극기복례(克己復禮: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진정한 예를 회복하다)'의 정신과 상통한다. 이와 같은 논점에 입각하여 (나)에서 말한 '사회 집단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250자 내외)

문항2) (다)에서 코레일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나)의 논지를 참고하여 본인의 찬반 입장을 논술하시오.(250자 내외)

1. 출제 의도

첫 번째 문항은 우선 맹자가 양혜왕에게 말한 '인의'의 함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대한 현대적 응용을 통하여 현대 사회 집단에 만연해 있는 집단 이기주의 극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묻고자 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코레일이 서울역에서 예정된 A사 측의 행사를 취소한 데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구체적 근거를 통해서 얼마나 상식적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문항1)의 예시 답안

이기심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자기애의 다른 표현이자 자신에 대한 절대적 강조와 중시이기 때문이다. 한 점의 사욕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성찰하면서 억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는 각각 다른 인격과 품성이 정해지게 된다. 이는 집단의 차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그것이 국가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까닭에 집단의 합리적 이성정신의 소유 여부가 그 집단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맹자가 말한 '인의'는 '집단의 합리적 이성정신'과도 내적으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양혜왕이 말한 '이로움'은 자국의 배타적 이익의 실현을 뜻하며, 맹자가 제시한 '인의'는 바로 그 대립점에 서서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혜왕에 대한 설득인 동시에 현대 사회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업 윤리와 기업 이념으로서의 나눔과 베품의 합리적 덕목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문명비평가 니부어(Niebuhr)가 개인 윤리와 사회윤리의 성격을 구분하여 "사회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사회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한 사회 윤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판단을 내리는 협애한 이기심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회 집단의 차원에서도 집단 이기주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건전한 윤리관념과 합리적인 이성정신을 견지해야 집단 이기심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와 기업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경영윤리, 국가이념 등의 정립을 통하여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적 품성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기업경영 풍토 아래에서라야 집단 이기심을 제어하고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채점 기준

(가)와 (나)의 논지에 기반하여,

- 맹자가 말한 '인의'와 그 대립적 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집단 이기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사회의 집단 이기심 극복에 대한 견해를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가?
- 사회 제도의 정비와 정책 개선으로 사회 집단의 윤리의식의 고양을 통한 해결책 제시시 가산점
- 사회 집단의 합리적 이성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시 가산점
- 구체적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시 가산점
- 답안 편폭의 부적정성에 따른 감점(±10%까지는 무감점)

문항2)의 예시 답안

이윤 추구를 통한 투자와 확대재생산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존재양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다양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는 지문 (나)에서 사회의 집단 이기심이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의 일반적 속성과 지문 (다)에서 A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극단적 행보에 대한 코레일 측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의 견해가 예상된다. 즉,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윤리와 도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 차원에서의 당위적 요구와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코레일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반대의 근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가산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답안으로서 **찬성의 경우**라면,

세계적 가구 회사인 A사가 자신의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와 신뢰마저 저버렸으므로 코레일이 A사의 서울역 홍보 행사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소비자의 정서를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그러한 이중적 행보에 대한 코레일 측의 적절한 징벌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 대 기업 관계에서 계약에 따라 기획된 행사를 바로 전날에 와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것은 시시비비를 떠나 옳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A사가 그 행사를 위해 홍보 광고에 들인 제반 비용과 시간도 그렇거니와 기업 이미지 면에서의 심각한 타격은 물론 매출 감소 등의 손실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사 취소는 부당하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사전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등과 같은 의견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 기준

(1) A사 측의 행사 취소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

·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불문하고 각 입장의 논조가 분명한가?

· 찬반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근거 자체에 설득력이 있는가?

· 답안 편폭의 부적정성에 따른 감점

※ 참고문헌

1. 新譯講讀 四書三經, 明文堂
2.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3. EBS뉴탐스런 생활과 윤리, 한국교육방송공사
4. 경향신문 인터넷판 2014.11.19.